

# 소방당국, '24시 구급지휘팀' 등 체계 개선

## 소방청, 예방·대응·평가 등 대책 마련 '구급지휘팀' 전국 소방서 상시 운영

5일로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는 가운데, 159명의 희생자를 마추했던 소방 당국은 후속 대책 추진에 분주한 모습이다. 예방과 대응, 평가를 아우르는 대책이 쏟아진 상태인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대응을 두고 여러 문제 등이 제기됐다. 경찰과의 공동 대응, 환자 이송, 현장 지휘 체계 등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현장대응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도록 하겠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TF 등을 거쳐 마련된 소방청의 대책에는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해 적

정한 소방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소방 상황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축제 시 소방 출동로 사전 확보에도 나선다.

전국 소방서에는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구급지휘팀이 신설됐다. 참사 당시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소방서별로 6명 안팎의 인원이 교대 근무를 하는 식이다. 이들은 재난 응급의료 현장 지휘·조정·통제, 임시 의료소 설치·운영 총괄, 보건소·재난 응급의료팀 등 자원 관리 등 역할을 한다. 평시에는 다중 출동 대응, 현장 활동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한다.

소방청은 거점별이 아닌 소방서별로 구급지휘팀을 둬으로써 현장 도착 시간이 줄어드는 등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재난 초기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 처치, 이송 등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전문화 및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게 소방청의 구상이다.

소방의 119구급활동시스템과 병원의 응급환자진료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환자 이송현황을 분석하고 실시간 추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단계에 따라 구성되던 긴급구조통제단을 재난 유형과 특성에 따라 규모와 형식을 달리한다. 재난 수습 후 긴급구조활동평가도 내실화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참사 당시 지적됐던 경찰과의 공동 대응 부실과 관련해서는 두 기관 사이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연락관을 상호 파견하는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 연 1회로 한정됐던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횟수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수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계식기슴 압박장치를 확대 보급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과 성인 등 237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난해 225만 명에 비해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잠룡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구조·구급 활동 인력을 상대로 한 심리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소방 당국은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상담, 지원을 지속한 바 있다.

올해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 안전지원 사업비가 지난해 58억8900만원에 비해 11.6% 증액된 6억8000만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소방청은 이를 활용해 전문상담사 인력을 확충하고, 치료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 광주 남부소방,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주 동부소방, 민간인 초기 화재 대응 유공 표창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민간인에 대한 소방서장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강진소방, 강진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mou) 체결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가 지난 1일 강진로타리클럽과 함께 취약계층 생활 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광양소방, 필로티 구조·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외장재 마감 건축물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년 12월부터 3개월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 여수소방, 빈틈없는 화재 대응 총력...1월 화재건수 22.7% 감소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2023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월 대비 22.7%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 완도해경, 최일선 부서 지휘관 치안현장 점검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해상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태세 확인을 위해 지휘관 치안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 보험료를 인상 가닥...국민연금, 공론화로 합의 이룰까

### 자문위 내부 이견...합의안 도출 난항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 보고 예정 '유력안' 없이 보고서 제출 가능성

소방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영유아(만 0~5세) 생활안전사고를 2022년 대비 5%를 줄이기로 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최근 수립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대책은 5개년(2023~2027년) 계획으로 아이 키우기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발생률을 매년 1%씩 5년간 총 5% 저감하는 게 골자다.

영유아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영유아 발달 단계별 생활안전사고 원인 등의 정보 분석·제공이 부재했던 데다 보호자·보육교사·유아 등 교육 대상자별 전문교육도 미흡했었다.

영유아 생활안전사고로는 넘어

짐·부딪힘, 떨어짐, 기도 이물, 화상, 손발 끼임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2만 건 안팎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집계 중이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2021년의 1만6327건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 게 소방청측 추산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보면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영유아의 비(非)의도적 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6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평균 8.8명보다 3.8명 많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저감 목표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발생 건수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매년 1%씩 줄여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수적

으로 잡았다. 첫 계획인 만큼 후속 세부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치는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정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항목 수정·추가 등 기초자료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분석을 고도화한다.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도 만든다.

최근 실시된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유형은 '넘어짐·부딪힘'(6937건)이 전체의 42.5%로 가장 많았다. '떨어짐'(4142건·25.4%), '기도 이물'(1590건·9.7%), '화상'(1122건·6.9%), '손발 끼임'(910건·5.6%), '치명적 손상'(81건·0.5%) 등이 뒤이었다.

성별과 연령별로 사고 유형은 달랐다. 만 0세일 때 남아와 여아의 사고 비율은 비슷했으나 만 2세부터는 활동량이 보다 많은 남아 비율이 60%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만 0세

사고의 대부분(92.2%)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인 '치명적 손상'이 32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떨어짐 사고가 만 0~1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가 2세에 급격히 감소했고, 넘어짐·부딪힘 사고는 걷기 시작하는 1세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만 3세는 야외활동이 늘어 실외 놀이터 사고가, 만 4세는 승용기구를 타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만 5세는 벌레 등에 물리거나 쏘이는 사고가 각각 영유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또 영유아 사고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어린이 안전주간 설정 등을 통한 대국민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소방청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유아 생활안전사고가 없도록 생활환경 속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서귀포는 봄빛 가득' 입춘 절기 다음날인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순천시 아궁이 불씨 야산으로 번져...임야 0.1ha 소실

4일 오전 11시 50분께 순천시 인월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1시간 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1ha가 탔다. 진화 작

업에는 헬기 3대, 소방차·산불 진화차 15대, 공무원과 소방대원 58명이 동원됐다. 산림 당국은 야산 아래쪽 농가에서

아궁이에 지핀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방치·결박' 두살 원아 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2살 원아를 방치·결박해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전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오전 10시 9분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시간 도중 울던 2살 여아가 보살핌을 요구했는데도 여아의 팔을 뿌리친 뒤 일어나 계속 울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6분 같은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하지 않던 2살 여아의 목 부위를 팔로 결박한 채 힘을 쥐 안아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B씨는 피해 아동에 건 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아동은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환기자